

鍾山 李源命의 의식의 지향점과 야담에 대한 인식

김 상 조*

차 례

1. 서론
2. 이원명의 의식의 지향점
3. 이원명의 야담관
4. 결론

1. 서론

『東野彙輯』의 편자(또는 저자)인 李源命은 1807년 순조 7년에 태어나 경기도 관찰사 사헌부 대사헌 이조판서 등의 벼슬을 역임하고 1887년 고종 24년을 일기로 삶을 마쳤다. 그는 고종 6년인 1869년 『동야휘집』을 편찬하였다. 『동야휘집』은 조선 후기에 나온 수많은 야담집 중에서도 ①찬자가 확실하고, ②그가 직접 쓴 「서문」과 「범례」가 남아 있어 그의 야담집 찬술 동기와 찬술 연대 그리고 야담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알 수 있으며, ③나름대로 체계적인 분류를 한 최초의 야담집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야휘집』에 의거하고 있다. 그

런데 야담은 야담집의 편자가 전대부터 전해지는 야담을 원형 그대로 전 재했는지 또는 어떻게 얼마만큼 개변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야담집에 실려 있는 야담을 가지고 작가 연구를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원명은 야담을 '史傳'과 유사한 갈래로 인식한 듯하다. 그래서 그는 각 야담의 끝에 '사전' 형식인 '논단'을 붙여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놓고 있다. 이것은 이원명의 저작으로는 『동야회집』 말고도 『正史輯要』 20권, 『鍾山漫錄』 10권과 약간 권의 시문이 남아 있었다고 하나 현재 전해지는 양은 실정에서 그에 대한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이 '논단'과 「서문」, 「범례」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의식의 지향점과 야담에 대한 그의 견해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동야회집』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²⁾ 그런데 편찬자인 이원명에 대한 연구는 이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이다.³⁾ 이것은 연구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야회집』의 '논단'은 전해지는 야담을 읽고 그에 대한 편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의식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 1) 이 '논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동근은 '論贊'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 연구』 태학사, 1991, 247~248면). 그러나 본고에서는 『동야회집』 서문에서 '논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 2) 權泰乙, “東野彙輯 所載 野談의 類型的 研究”, 영남대 대학원, 1979.
 曹喜雄, 『朝鮮後期 文獻說話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0.
 李康沃, “朝鮮後期野譚集研究”, 서울대 대학원, 1982.
 두정님, “『東野彙輯』研究”, 서울대 대학원, 1990.
 尹世旬, “『東野彙輯』의 性格考察”, 성균관대 대학원, 1991.
 洪性南, “『東野彙輯』研究”, 단국대 대학원, 1992.
- 3) 홍성남, “李源命論” 漢文學論集 15집, 槿城漢文學會, 1997.

2. 이원명의 의식의 지향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자의 생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東野叢集』의 저자 李源命(1807~1887)의 생애는 홍성남이 자세히 정리한 바 있다. 그의 조상에 따르면 이원명은 자가 釋明, 호는 鍾山이며, 시호는 文靖公으로 1807년 奎鉉(1777~1844)의 둘째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源庚이다. 순조 29년 22세에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동년 孝明世子(翼宗)에게 전강을 하였다.⁴⁾ 과거에 급제하고 바로 세자에게 전강을 하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때의 인연으로 그는 효명세자의 남다른 총애를 받았다. 그 후 그는 비교적 순탄한 관계 생활을 지냈다. 그의 주요 관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43세(철종 1, 1850) 성균관 대사성
- 48세(철종 6, 1855) 경기도 관찰사
- 53세(철종 11, 1860) 이조참판
- 55세(철종 13, 1862) 사헌부 대사헌
- 56세(철종 14, 1863) 이조판서

이후 그는 특별한 관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동 김씨의 세도와 대원군 치하에서 그에게 주어질 여분의 관직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죽기 7년 전인 고종 17년 그는 자신의 '墓碣銘'을 쓰고 7년 뒤 향년 64세를 일기로 삶을 마쳤다.

4) 洪性南, “『東野叢集』 研究 -『記聞叢話』 受容을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2, 30면. 「숙헌공유고」 貞年譜에 ‘同月差日 次儒生殿講考官’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차유생’은 이원명을 가리키며, 위의 기사 앞에 9월이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이원명이 순조 29년(기축, 1829) 9월 익종이 대리청정을 할 때 전강고관의 직분을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원명의 묘비명에도 익종대리시에 전강하여 익종의 총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初名源庚 以庠生赴殿講 厚被 翼宗代理時 眷顧之恩 早歲榮名.

아! 나는 고고하게 산다고 하였지만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다. 살아서는 칭송받을 만한 것도 없고 죽어서도 후세에 전할만한 것이 없이 초목과 함께 썩는다고 한들 무슨 유감이 있으리오. 그러나 혹시 얼룩소를 키우는 오랑캐라도 글을 지어 자기의 뜻을 표현한다면 대가의 비웃음만은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명예 이르기를 “넘쳐나는 임금의 덕화여! 어찌서 이 몸애까지 있는가? 오래 사나 짧게 사나 모두 잠시 머무르는 것이니! 지금에야 내 참 모습으로 돌아가네. 만점이 지나도 술잔의 흥과 같음이어! 푸른 산 흰 구름 속에 (내 뜻을) 펼치리라.”⁵⁾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고고하게 살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만 샀다고 하면서 푸른 산 흰 구름 속에서 뜻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달관한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글이 그의 삶의 만년에 쓰여진 것임을 고려한다면 관직에서 물러난 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다. 어쨌든 그는 그의 삶을 “살아서는 칭송받을 만한 것도 없고 죽어도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초목과 함께 썩는다고 한들 무슨 유감이 있”겠느냐고 하여 매우 겸손한 면모를 보여준다.

『동야취집』이라는 야담집 이외에는 아무런 저작물이 전해지지 않는 종산의 의식 세계를 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다행히 『동야취집』은 종산이 다른 야담집과 달리 매 이야기의 끝에 ‘史傳’ 형식의 논단을 붙여 놓

5) 「李源命 墓碣銘」. 噫 余嶽崎歷落可笑人 生而無可稱 沒而無可傳 將與草木同腐 復何憾焉 猶恐犁牧之夷 爲文而表其藏 得不見笑於大方否 銘曰 大化泱泱兮 胡然而有此身 彭殤齊其寄逆旅兮 今而後返吾真 閱萬劫而一杯土兮 展也青山白雲之人. 이 자료는 洪性南 「李源命論」, 『漢文學論集』, 15집, 槿域漢文學會, 1997에 원문을 수록하여 놓았는데 필자는 직접 가보지 못하였다. 홍성남에 의하면 이 묘갈명은 경기도 시흥군 오마동 산록 그의 묘 앞에 있는데 “전면에 ‘崇祿大夫吏曹判書兩館提學種山李源命之壽藏 貞敬夫人大邱徐氏附左’라 기재되어 있고, 후면과 우측은 이원명이 영면하기 7년전인 고종 17년(1880) 몸소 지나온 삶의 자취를 솔직한 내용을 새겼고, 좌측면에는 이원명이 고종 24년(1887) 영면한 후 동년 10월 그의 손자인 文榮이 장사지낸 후 이원명의 부인과 합장하고, 이듬해인 고종 5년(1889) 문영이 추가로 그 사실을 써서 새긴 내력을 밝히고 있다.” (홍성남, 『동야취집연구』, 27~28면)

은 것이 남아 있어서⁶⁾ 이것을 통하여 그의 의식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큰 다행이라 할 것이다.

용꿈을 꾸고 과거에 오르는 일은 옛날에도 간혹 있었으나 임금의 꿈에까지 나타나는 것은 더욱 귀하고 장한 일이다. 사람과 까치의 호응은 곧 지극한 정성의 결과다. 과거 급제는 모두가 하늘이 정한 것이니 무슨 힘으로 취할 수 있으리오. 다만 마땅히 내 정성을 당하고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

이것은 과거에 급제한 세 사람이 급제한 내력을 모아놓은 「感宸夢獨占 魁科」⁸⁾ 끝에 붙어 있는 ‘논단’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天定’ 즉 무슨 일이든 인위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미리 정’해 놓았으며 인간은 그 정해진 길에 따라 살아진다고 하는 ‘天命’ 사상이다. 이 ‘천정’, ‘천명’론은 『동야휘집』에 실려 있는 이야기의 세계를

- 6) 『동야휘집』의 논평은 ‘外史氏曰’로 시작하는데, 저자가 직접 쓴 「서문」에 “각단의 아래에는 논단을 붙이니 사전의 형식을 모방한 것”(各段之下 輒附論斷 略倣史傳之例)이라고 하고 있어 모든 이야기의 뒤에 다 붙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동야휘집』 이본 중에서 모든 이야기에 사평 형식의 논단이 붙어 있는 것은 정명기 교수가 소개한 大阪府立圖書館本뿐이다. 이 ‘논단’은 아담집의 편찬자가 단순한 기록자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따라서 이본에 따라서 이것이 없는 이야기가 많은 것은 (두정남에 의하면 16권 8책본의 경우 15권 ‘述異部’와 16권 ‘拾遺部’에만 잔존해 있는 논평이 도합 40편이고, 연세대 1책본의 경우 ‘恩數部’, ‘儒賢部’, ‘將相部’에 해당하는 아담 26편에 논평이 남아 있다. 그리고 6권 3책본에는 매편마다 남아 있어서 대판본을 제외한 이본에 논평이 달려 있는 이야기는 총 260화 중 107화에 지나지 않는다. - 두정남, 『동야휘집 연구』 국문학연구 97집, 서울대 대학원 국문학연구회, 1990) 이것은 이본의 기록자가 논평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떼어낸 것이라 할 것이다.
- 7) 鄭明基 編, 『東野彙輯』上 (寶庫社, 1992) 23면. 夢籠登科 古或有之 而至現宸夢 尤貴且壯矣 人謁之應 卽至誠忱感 科甲皆有天定 何可力取 但當盡吾誠 待天命而已. 정명기의 보고에 의하면 이 책-대판본 『동야휘집』이 “현재까지 우리 학계에 소개·보고된 이본들 가운데서는 원 『동야휘집』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이본”(「해제」)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하 『동야휘집』은 이 책을 텍스트로 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하에서 『동야휘집』의 출처는 ‘상’ ‘하’와 면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 8) 이 이야기에는 이밖에 과거 급제와는 관계가 없는 丘從直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지배하는 가장 큰 사상이자 '논단'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성종의 꿈에 황룡이 승례문으로 들어오는데 이마에 '李石'이라고 쓰여 있었다. 성종은 꿈을 깨자 내시를 불러 남대문이 열리면 무조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가 이석이었다. 그는 일자무식한 사람이었으나 과거에 응시하게 하였더니 그의 아버지 친구가 나타나 시권을 작성해 주어 결국은 급제하였다. 용꿈이 임금의 꿈에까지 나타나는 예인 것이다. 이석은 과거에 급제하도록 '천정'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것도 그가 급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복산 아래에 살던 선비는 과거에 급제할 수 없는 운명의 주인공이었다. 왕이 그를 급제시키기 위하여 별과를 열고 전날 그 유생이 연습한 시권 중 하나에 맞는 문제를 내었으나 그는 임금이 그에게 준 고기를 먹고 채하여 과거를 보지 못한다. 하늘이 이미 정해놓은 운명이라 임금이 그를 급제시키려고 해도 끝내 급제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간은 다만 정성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전쟁의 변고가 일어날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저 자손을 위한 계책만을 세울 뿐 나라의 환란을 막을 계책에 대한 것은 한 마디도 없으니, 운세가 이미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알아서 그랬던 것인가!

이것은 동고 이준경이 임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인을 찾아내 집안을 구한 이야기 끝에 붙인 것이다. 종산은 동고가 "사조의 원로로 권신과 간신들을 조정에서 몰아내고 성군을 추대하였으며 …… 공이 사직을 지킨"⁹⁾ 인물이라고 극구 칭송을 한다. 그런 그가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도 자손을 위한 계책만을 꾸밀 뿐 '나라의 환란을 막

9) 상 81면. 既知龍蛇之變 而徒爲子孫之計 未有一言及於國家弭患亂之策 抑以天運之不可挽回而然耶.

10) 위와 같은 곳. 東皐以四朝老臣 屏黜權奸 翊戴聖君 …… 可謂功存社稷.

을 계획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다면 이는 '사직을 지킨'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행동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천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이다.

명분은 이러한 '천정', '천명'에서 나온다. '천정'이 하늘이 정한 것이라면 '명분'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당위이기 때문이다. 명에 대한 사대도 역시 이 논리의 연장선이라고 할 것이다. 종산은 명나라에 대한 사대 의식이 철저했다. 『동야회집』에는 임란 전 일본의 사신이 명나라를 치기 위하여 길을 빌려달라고 하자 그는 "너희가 우리 부모의 나라를 범하려고 우릴 위협하여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라가 망할지언정 길은 빌려줄 수가 없다."¹¹⁾고 하는 말까지 찾아볼 수 있다. 명을 '부모의 나라'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은 어차피 사대를 하기로 한 마당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라가 망할지언정 길은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대로라면 왜에게 길을 빌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명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

제독이 평양을 탈환한 것은 화살 하나로 천산을 안정시킨 것과 같이 그의 위명이 크게 떨쳤다. 이때 바로 이긴 기세를 몰아 적을 쫓지 않고 또 우리 군사들의 매복도 물리케 하여 적들이 소매를 흔들며 천천히 도망가게 하였으니 이것도 틀림없이 생각이 있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또한 아깝지 않으리오. 노옹의 일은 기괴한 이야기와 같아서 믿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를 격발시켜 군사를 진격시켜 적을 앞보다가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병가에는 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아직 잔당을 다 쓸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운 공을 다 쓸어다가 군대가 화를 당하게 한 것이 8년이라는 긴 세월이나 되었으니 뜻 있는 선비들의 한을 금할 수 없다.¹²⁾

11) 상 98면. 爾欲犯我父母之邦 而脅我假道 國可亡 道不可借.

12) 상 115~116면. 提督之克復平壤 便同一箭定天山 威名大振 直其乘勝長驅 而不卽追剿 又令我撤伏 使賊掉袂而徐走 此必有斟酌者 然亦不惜哉 老翁事 近於齊諧 未知信否 而激使進兵 輕敵失利 勝敗雖兵家之常 未克掃餘孽 而收全功以致兵連禍結 至於八年之久 殊不禁志士之恨也.

이 논평은 이여송이 구원군을 끌고 와서 조선을 차지하려고 했다가 소를 탄 노인에게 혼이 나고 야심을 버린 이야기에 덧붙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계서야담』과 『청구야담』에도 나오는 것으로 명의 구원병이 구원병이 아니라 점령군일 수도 있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며 사대부들의 맹목적인 사대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평은 어처구니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노옹에게 혼이 난 이여송이 다음날 왜적을 공격하다가 패배하였다는 일화를 덧붙이고, 그로 인해서 병화가 8년이나 되게 하였다는 말은 그의 사대주의가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를, 말을 바꾸어본다면 그의 명분론이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¹³⁾

그렇다고 그가 '천정'의 운명을 요지부동의 것으로 보았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선의 결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권9의 「敎四命占山發福」은 바로 그런 이야기이다. 김선비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집이 가난하여 옛날에 도망친 노비들을 찾아가 속량을 하여 주고 돈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돈 때문에 일가가 금강에 빠져 죽으려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돈을 주어서 그들을 살려주고 나중에 그때 구해준 사람의 보답으로 복을 받아 잘 살게 된다. 여기에 종산은 다음과 같은 평을 달아 놓는다.

김선비가 자신의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진 것을 다 털어서 네 사람의

13)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으나 여성 문제, 또는 노비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인데 이것도 역시 그의 사대의식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의한 예정에 순응하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奴主之分 與君臣父子之倫一體 而悖奴之包藏凶圖 卽覆載之所難容 萬嗣猶輕 而暗地結果 未能明正其罪 是可恨也」(하 94면) 「夫婦之義 奴主之分 人倫之大者 豈可相害 而有此意外之變 其冤氣靈魄 不隨異物腐散 至於形現夢告 終乃伸冤而報仇 可見天理之不可誣也」(하 731면) 등은 바로 하늘에 의한 예정에 순응하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이른바 '아랑형 설화'의 뒤에 內則曰 女子出門 必擁蔽其面 夜行以燭 無燭則止 又曰 男女不雜坐 聖人制禮 防於未然 其旨切矣(하 84면)라는 논평을 달아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살인자의 살인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아랑이 외간 남자에게 얼굴을 보게 한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목숨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몰래 덕을 베푸는 것이요, 좋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아니 마땅히 복을 받는 것이다.¹⁴⁾

선행을 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천정'도 바뀔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동아회집』에는 이런 이야기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선행의 결과로 복을 받는다는 것도 '인과응보'라는 또 하나의 명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인과응보'는 '천정'보다도 더 강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사람이 아들이 없으면 혹 양자를 들이기도 하지만 노옹의 일은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으니 진실로 망령된 것이며, 정생이 이로 인하여 아들을 얻고 이에 힘입어 노년을 즐겁게 보내게 된 것 역시 분수에 넘는 복이다.¹⁵⁾

이것은 남의 여인과 상관하여 아들을 낳고 그로 인해서 노년을 즐겁게 보낸 정생의 이야기 「因借胎媠老三家」 끝에 붙여놓은 것이다. 종산은 이 이야기의 노옹이 정생에게 자신의 첩과 동침을 하여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는 것도 망령된 것이지만 이 명분 없는 행위의 결과로 정생이 노년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도 분외의 복이라고 하며, '아! 천도가 무지하여 伯道가 아이가 없으니 운명을 어떻게 하겠는가?'¹⁶⁾라고 탄식한다.

'천정', '천명'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적선의 결과(명이 바뀌어)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인간은 그 보답이 언제

14) 하 24면. 金士人 不恤自己之貧困 一傾裝而救四人之命 此陰德也 善事也 何論人之知與不知 而天知神知 宜其獲報而獲福也.

15) 하 828. 人而無子 或有媠媠之負 而老翁事 則太不近理 誠妄矣 丁生之因此添丁 賴以媠老 亦分外之福.

16) 위와 같은 곳. 噫 天道無知 伯道無兒 其於命何.

어떻게 주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가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이것을 알기도 한다. 北窓 鄭礪이 바로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다. 그는 사람의 수명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 일부를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주기까지 한다.

북창의 신이한 술법은 내 보잘것없는 소견으로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망령되이 말하자면 다만 그가 자신의 수명을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더해준 것과 같은 일이 옛날에도 있었던가? 황당한 일이다. 그러나 지인, 도인과 평범한 사람은 다른 법이니 '목숨이 길거나 짧거나 마침내는 모두가 자연의 조화에 따라 다하고' '죽고 사는 일을 하나로 보는 것도 허망하고 오래 사는 것과 일찍 죽는 것이 같다고 하는 것도 또한 망령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 하늘이 그에게 남과 다른 재주를 주고도 또 중간에 꺾어지게 하였으니 하늘의 뜻은 알기 어렵고 운명은 변함없는 것이 없구나.¹⁷⁾

종산은 북창이 자신의 수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회의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나 해당 하는 것이지 지인, 도인에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좌절하게 하는 하늘의 뜻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이원명의 야담관

1869년(철종 20) 이원명은 『동야휘집』을 편찬했다. 많은 야담집의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처지에서 이원명은 야담 연구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그는 편자가 직접 그것도 적지 않은 분량

17) 상 47면. 北窓神異之術 豈可以管見盡測 妄有議到 而第其減其年 而添人壽 古有是否 恐涉荒唐 然至人道人與常人殊 抑以修短隨化 終期於盡 一死生爲虛誕 齊彭殤爲妄作而然歟 …… 天旣生絕異之才 而又使摧折之 儻所謂天難諶 命靡常者耶.

의 서문과 범례까지 남겨놓고 있어서 야담 작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긴한 자료가 된다. 그러면 이 「서문」과 범례를 중심으로 이원명의 '야담관'을 알아보기로 하자.

패관야승은 옛 성현이나 제자백가의 책 후인들의 문집을 공부하는데 이롭지 못하므로 진실로 문장가들이 즐겨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기한 소문을 모으고 기이한 구경거리를 넓혀서 역사책의 빠진 것을 보충하고 사람들과 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니 또한 문장가들이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것이다.¹⁸⁾

문장가들이 패관야승을 소홀히 해서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성현의 공부하는 데 이롭지는 않지만 역사책에 빠진 것을 보충하고 담소거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이원명 특유의 생각은 아니다. 조선 초기부터 많은 필기나 패설의 서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역사책의 빠진 것을 보충한다고 하는 필기 자체의 속성에서부터 내재한다.¹⁹⁾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과의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말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원명의 이야기 기록 태도는 스스로가 역사책의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고 하면서도 '차례 중에서 혹 틀린 것이 있'다고 고백한다.²⁰⁾ 여기에서 말하는 차례(次序)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데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추측해본다면 연대나 이야기 주인공의 생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18) 鄭明基 編, 『東野彙輯』 上 (寶庫社, 1992) 2면. 稗官野乘 不利於墳典子集 固文章家所不耽看 而其搜異聞博奇覽 備史乘之闕遺 資談笑之欄 亦文章家之不宜束閣者也.

19) 徐師會 「文體明辨」 권3 (晤晨社, 1984), 428면. 紀事者 記志之別名 而野史之流也 古者 史官掌記時事 而耳目所不逮者 往往遺焉 於是 文人學士遇有見聞 隨手紀錄 或以備史官之採擇 或以備史籍之遺亡. 필기는 기사문의 일종이다.

20) 「범례」 상, 5면. 年代次序之間 或舛差有不暇顧.

‘만일 『동야회집』이 역사서를 지향했다면 위와 같은 언급은 매우 무책임하게 느껴질 것이다.’²¹⁾ 아니 역사가로서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틀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이원명이 『동야회집』에 대해 역사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 보충이라는 말은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²²⁾ 실제로는 사람들과 담소하는 데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나는 호사가가 아니다. 오직 저절로 일어나는 흥을 부쳐서 여러 선학의 저술과 비교하는 것이니 생황과 종에 맞추어 부르는 천한 노래만도 못할 뿐 아니라 진실로 현인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지만 책 속에 수록된 인정과 사물의 모습은 분명하기가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 같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사실을 밝히며 세간의 풍속을 징험하여 세상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³⁾

또 하나의 목적은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전대의 필기나 패설의 저술 목적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원명의 야담 인식은 이전의 필기 패설집 저자들의 필기 패설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원명은 야담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가?

이 책은 야담만을 모아서 엮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사나 소설에 실려 있는 것은 채록하지 않은 것이 많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고담에 가까운 것이 있으면 모두 기록을 하였다.²⁴⁾

21) 두정님, “『東野彙輯』研究”, 국문학연구 제97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연구회, 1990.

22) 이 경우 ‘감증고실’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될 것이다.

23) 「서문」 상, 3면. 余非好事者 聊寓漫興 較諸前修著述 不翊如筌籀下俚 固知見笑於大方 而第書中人情物態 瞭如指掌 可以溯古 摭實 驗謠俗而裨世教

모든 이야기의 앞에는 제목을 붙였으니 소설의 규칙을 따른 것이요, 끝에는 논단을 달았으니 사전의 용례를 모방한 것이다.²⁴⁾

위의 글에서 '야담'과 구분되는 것으로 '패사' '소설' '고담' 그리고 '사전'이 있다. 이 중에서 '패사'와 '고담'은 아무런 설명이 없으나 소설은 제목이 있고, '사전'은 논단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외형적인 형식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패사'는 흔히 말하는 '패관문학' 즉 '필기'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즉 앞에서 말한 '역사책의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패사'인 것이다. '사전'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고담'은 '패사'나 '소설'에 비하여 '야담'과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의 이야기를 채록하면서 '고담에 가까운 것'은 채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고담'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물과는 달리 사실적이기보다는 흥미본위의 "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는 또 소설에 실려 있는 이야기는 채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설'은 어숙권이 『패관잡기』에서 들고 있는 소설과 다르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양화소록』, 『태평한화』, 『필원잡기』, 『동인시화』, 『춘담해이』, 『금오신화』, 『청파극담』, 『용재총화』, 『육신전』, 『추강냉화』, 『매계총화』, 『표해기』, 『한중계치』, 『제주풍토기』, 『수문쇄록』 등인데²⁵⁾ 이 중에서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소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필기'에 가까운 것이다.²⁶⁾ 또한 매편의 앞에 제목이 달려있지

24) 「법패」, 상 4면. 此編 專取野談而成書 故稗史小說之所載者 多不採錄 就其中 苟有近於古談者 亦皆入錄

25) 「서문」 상 2~3면. 每篇之首 題句標識 鑿依小說之規 各段之下 輒附論斷 略倣史傳之例.

26) 「패관잡기」 권4.

27) 두정님은 이 부분을 아예 '패사소설' 하나로 묶어서 파악하고 있다(두정님, 앞의 글).

도 않아서 이원명이 말하는 소설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런가 하면 『조웅전』이나 『구운몽』, 『춘향전』과 같은 것은 소설로 보기도 어렵다. “꽤사나 소설에 실려 있는 것은 채록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말에서 볼 때 여기에서 소설은 한 권의 책 안에 여러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고 각각의 이야기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금오신화』와 같은 소설집이거나 『청구야담』과 같은 이야기집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동야회집』에 실려 있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일대기적인 형태이며 여기에 ‘사전’의 형식인 논단을 붙인다. 또 하나 『동야회집』에 실려 있는 이야기의 한 특색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일화의 모음’이다. 이 ‘일화의 모음’은 ‘야담’보다는 ‘전’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들이 이야기의 짜임새는 고려하지 않고 입전 인물의 일화들을 나열하기도 한다.

전은 …… 그 인물의 像을 부각시키는 데 긴요한 것들만을 精選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주제를 구현한다. 전에서 ‘일화’가 차지하는 위치가 단순히 중요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장르의 본질과 연관될 만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²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은 단순히 일화를 나열하기만 하기도 한다. 『동야회집』의 편자도 이야기 주인공에 대한 일화는 가능한 한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려고 하여 어떤 이야기는 이야기 전체의 짜임새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를 살펴보자.

『納淸亭二客哂笑』는 『계서야담』에도 나오고, 『청구야담』 권7에도 ‘江界妓爲李帥守節’이라는 제목으로 『계서야담』의 그것과 내용은 같으나 약간 축약된 형태로 실려 있는데 강제 기생 巫雲의 수절 이야기다. 무운은 서울 사람 성진사를 만나 정이 들었다가 그와 헤어지면서 수절을 하기로 결심하고 다리에 뜬 띠 흉터를 만들고는 뒤에 수청을 요구하는 사람에

28)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의 性向 研究』,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27면.

게 병이 있다고 핑계를 대며 거절하였다. 대장 李敬懸가 강계에 부임을 해와서도 처음에는 역시 거절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정이 깊어지자 무운은 사실을 고백하고 수청을 들었다.

(이경무가) 임기가 차 돌아가게 되자 무운이 따라가기를 원하였다. “나는 데리고 있는 첩이 셋이나 있어서 네가 따라오는 것은 심히 오긴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첩은 마땅히 수절을 하겠습니까.” 이대장이 웃으며 말하였다. “수절한다는 것이 성진사를 위한 수절과 같은 것이냐?” 무운이 발끈 화를 내며 얼굴색이 변하더니 칼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이대장이 깜짝 놀라 데리고 가려고 하였더니 말을 듣지 않고 작별을 하였다. 그리고 십년 후 이대장이 훈련대장으로 성진에 부임해 왔다. …… 하루는 무운이 나타났다. 이대장은 기뻐하면서 그를 맞아 적조했던 회포를 풀었다. 밤이 되어 가까이 하려 하자 무운은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하였다. 이대장이 물었다. “왜 그러느냐?” “사또를 위하여 수절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절을 하면 어찌하여 나를 거절하느냐?” “이미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기로 마음에 맹세를 하였으니 비록 사또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한번 남자를 가까이하면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강력하게 거절하였다. 그 후 그들은 일년 남짓 같이 살았으나 끝내 가까이하지 않았다.²⁹⁾

무운은 자의식이 매우 강한 여인이다. 그는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필요 없다고 거절당하고 수절하겠다고 했다가 조롱만 당했다. 사실 이경무의 조롱은 그녀가 이미 성진사를 위하여 수절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나서도 자신을 가까이 한 것을 알고 있는 처지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손가락을 잘라서 자신의 결심을 보인다. 그 때서야 이경무는 그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 이번에는 그녀가 거절한

29) 『청구야담』 栖碧外史海外蒐佚本 하, (아세아문화사, 1985) 222~223면. 瓜熟將歸也 雲願從之 李帥曰 吾有三妾之率畜者 汝又隨去 甚不聚矣 雲曰 若然 妾當守節矣 李帥笑曰 守節云者 如爲成進士守節乎 雲勃然作色 仍以刀斫左手四指 李帥大驚 欲率去 則又不聽 仍以作別 後十年後 以訓將補城津 …… 一日雲來現 李帥欣然逢迎 敝積阻之懷 與之同處 夜欲近之 則抵死牢拒 李帥問之曰 此何故也 對曰 爲使道守節矣 李帥曰 旣爲吾守節 則何抵我也 雲曰 旣以不近男子 矢于心 則雖使道不可 一近之 則便毀節也 仍堅辭 同處一年餘 而終不相近.

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수절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수청 요구에 “이미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기로 마음에 맹세를 하였으니 비록 사또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한번 남자를 가까이하면 궤절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죽기를 무릅쓰고 거절한다. 이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고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이경무의 처가 죽자 분상을 하고 상복을 입고 이경무가 죽었을 때에도 역시 그렇게 한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雲大師라고 하면서 수절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자못 비장한 느낌을 준다.

『동야회집』에는 이 『계서야담』이나 『청구야담』의 이야기 앞에 하나의 일화가 덧붙여 있다. 남원 선비 梁生이 3년이나 무운의 수청을 받았다. 돈이 떨어져 빈털털이가 되어 돌아오다가 자기와 똑같이 무운에게 빠져 재물을 탕진한 상인을 만나고는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이 일화는 이른바 ‘발치설화’로 널리 알려진 것의 앞부분에 해당한다. 『고금소총』에 실려 있는 ‘발치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생이 함흥의 기생에게 정이 깊이 들었다. 헤어질 때 기녀가 그에게 신표로 ‘切身之物’을 하나 주면 잊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뽑아주었다. 중도에서 그녀 생각이 나서 올다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모두 그녀에게 이를 뽑힌 사람들이었다. 최생이 다시 돌아가 그녀에게 자신의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자루에 가득 든 이를 내주면서 찾아가라고 했다.³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배비장전」에도 애랑에게 훗날 정비장이 이를 뽑아준다는 내용으로 들어 있다. 그런데 이 일화가 들어가면서 『동야회집』 소재의 「남청정이재도소」는 무운이 이경무를 위하여 그의 사후에도 수절하는 결말 부분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서야담』이나 『청구야담』에서 보이는 비장감이 사라져버린다. 네 번째 남자에게 수절한다고 할 때 그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으며, 그런 여인의 수절을 비장한 느낌을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작품의 시작 부분의 골계적인 느낌과

30) 「命奴推齒」, 『고금소총』(旰晨社), 253~254면.

후반부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나면서 작품의 통일성이 약화되고 말아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야회집』의 찬자는 이야기 주인공의 일화를 빠짐없이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다. 『동야회집』에는 이러한 예도 많이 나타난다. 이 '논단' 과 '일화의 '모음' 이라는 사전 형식의 두 측면은 이원명이 생각하는 야담의 형식적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이원명은 야담은 '사전' 과 달리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채록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기록해놓은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저승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도 역시 삼생의 인연이다. 어찌 양계에서 혼인을 하지 않고 香粉地獄에서 신방을 차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무슨 이치인가? 무릇 부정하게 재물에 욕심을 부린 사람은 천벌을 받는데 스스로 자신의 죄에 따라 일정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딸을 기생을 만 들어서 그 죄값을 받게 하다니. 벌은 계승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딸에게랴.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징계하기에 족하니 만약 조금만큼만 착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보답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그림자나 소리처럼 빠르는데 마음먹은 것보다 더 크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³¹⁾

이것은 양세륜이 저승에 가서 향분지옥을 보고 왔다는 「遇新婦因夢成親」의 뒤에 붙인 사평이다. '무슨 이치인가?' 또는 '믿을 수 없는 것' 이란 이야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이 이야기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징계하기에 족하' 라고 하는 교훈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³²⁾ 이것은 이원명이 이야기의 사실성보다는 교훈성을 더 중요한

31) 하 710-711면. 冥途奇遇 亦係三生緣業 胡不於陽界成親 而乃移洞房花燭於香粉之獄 此何理也 凡贓汚之類 明致天罰 自有常刑 而錄其女入青樓 以償孽債 殊垂罰不及嗣之義 而況女乎 亦涉荒誕 然猶足以懲貪夫耶 至若一念之善而報應 捷如影響 太上心德 卽此之謂也.

32) 이러한 예는 이밖에도 「冠童接黃龍現異」 1513, 「因借胎媿老三家7」 160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것으로 생각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堪證故實’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서문에 나오는 말로 『어우야담』과 『기문총화』 중에서 이야기가 크고 길어서 사실 고증을 견딜 만한 것들을 모았다고 한 것이다.³³⁾ 살펴보았듯이 원문에는 분명히 ‘증고실’이 아니라 ‘감증고실’이다. ‘증고실’과 ‘감증고실’은 어떻게 다른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을 고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堪’은 견디어내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감증고실’은 사실 고증을 견딘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을 고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증의 절차를 견딘다는 뜻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다시 말하면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꾸민다는 것이다. 이원명이 이야기를 가져왔다고 한 『어우야담』, 『기문총화』와 『동야회집』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의 하나는 무명씨 주인공의 이름을 밝혀놓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중에는 사실에 맞게 고증을 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고증의 결과 밝혀놓은 주인공의 행적이 근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힌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감증고실’의 의미다. 한 예를 살펴보자.

권 12의 「掃雪庭獲窺故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成世昌이 아버지가 평안감사로 갔을 때 그를 따라 평양에 가서 자란이라는 기생과 정이 들었다. 부친의 임기가 끝나 서울에 온 성세창은 산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기생 생각이 나서 찾아 감자기 평양으로 가 눈을 쓰는 인부로 가장하고 그녀를 만난다. 두 사람은 맹산의 산골로 도망을 한다. 기생의 도움으로 성세창은 과거에 급제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 이야기는 『동야회집』이나 『청구야담』에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야기 주인공이 무명씨로 나온다. 그러니까 『동야회집』에서 성세창으로 신원이 밝혀진 것은 이원명이 사실을 밝혀놓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

33) 余於長夏調疴偶關於于野談紀聞叢話 …… 遂就兩書 撮其篇縮話長 堪證故實者.

증에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첫째 성세창의 아버지 성현이 평안감사로 나간 것이 1488년이니까 그때 1481년생인 성세창은 겨우 7, 8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다. 기생과 정이 들고 운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다. 또 그가 과거에 급제한 것은 1501년 연산군 7년 그의 나이 20이 되어서인데 『동야휘집』에는 자란과 도망하여 공부를 한 것이 겨우 '수년', 또는 가출 후 '3년' 뒤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성현은 예조판서다. 성현이 예조판서를 한 것은 1493년 성종 24년부터 1497년 연산군 3년 무렵이니까 사실과는 다르다. 결국 이원명은 사실을 고증한 것이 아니라 고증한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다.

4.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이원명은 모든 일이 '천정' '천명' 즉 '하늘이 미리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 '천명' 또는 '천정'은 이원명의 의식의 최종적인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천정'을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리가 '명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명은 명분에 따라 거의 맹목적인 정도의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 문제나 신분 문제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원명은 야담은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고 곁하여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야담이 '패사' '소설' '고담' 등과 구분되며, '사전'과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야휘집』 소재의 야담은 '사전'과 같이 이야기 주인공에 관계되는 것이면 작품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는 일화까지도 다 모아놓고, 또 '논단'을 붙여놓았다. 본고에서는 이 '논단'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의식의 지향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그가 '야담'을 '사전'과 같은 것으로 보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야담'이 '역사의 빠진 부분을 보충해준다'고 하고 '고증'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 고증은 사실을 고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힌 것처럼 꾸미는 '감증고실'을 통하여 사실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상의 결론에는 자료가 희박한 현실에서 지나친 억측이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되면 논의도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